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6월 미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대부분 부문에서
- Bloomberg: 미 신규 실업 청구건 5주째 하락
- Reuters: 연준 "미 경제 활동 상승 불구 전망은 약간 어둡다"
- WSJ: 뉴욕 연준 총재 "연준의 금리 신중 입장은 적절하다"

[물류]

- WSJ: 중국,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항만 거래에 중국 선박회사 참여 요구

[무역전쟁]

- Bloomberg: 무디스 "관세로 채무 불이행 위험 기업 증가"
- Bloomberg: 트럼프, 1백 50여개국에 10~15% 관세 부과 방침
- Bloomberg: 한국 외무 장관 지명자 "2주 내 관세 타결 가능하다"
- Reuters: 트럼프, "일본에 25% 관세 유지하고 인도와는 곧 합의될 듯"

[오일]

- Bloomberg: 유가 상승...공급 우려로 달러 강세 상쇄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우버, Lucid·Nuro와 손잡고 2026년 로보택시 출시 예정
- Bloomberg: 17,000달러의 중국산 쉘보레, 멕시코에서 인기
- WSJ: TSMC, 급증하는 칩 칩 수요 충족하기 위해 애리조나 확장에 박차

[보고서]

- KEI: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Surge in Broad Advance, Topping Estimates 6월 미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 대부분 부문에서

- 미국의 소매 구매액이 지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6월에 0.6% 증가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는 0.5% 증가했다.
- 전체 13개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특히 연이은 감소세 이후 상승세를 보인 자동차 판매 덕분이다. 6월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소매 판매 수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 해군 연방 신용조합 이코노미스트 Heather Long은 “올여름 경제 전망은 ‘회복력’”이라며 관세에 대한 우려에도 소비자들이 좋은 조건이라 판단하면 여전히 구매 의향이 있을 것이라 전했다.
- 연준은 관세가 물가에 일회성 타격을 줄지 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지 주시 중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Decline for a Fifth Straight Week
미 신규 실업 청구건 5주째 하락

-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5주째 하락하면서 지난 4월 중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자리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7월 12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7천 건 낮아진 22만 1천 건을 기록했다.
-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변동 없이 1백97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목요일 밝혔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economic activity rises but outlook pessimistic, Fed says
연준 “미 경제 활동 상승 불구 전망은 약간 어둡다”

- 연준이 7월 7일까지 12개 지역 사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조사하고 인터뷰한 결과 최근 수 주 동안 비즈니스 활동은 상승했으나 향후 전망은 중립적이거나 약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 많은 기업들은 물가 상승 효과가 이미 그리고 곧바로 예상된다고 말했고 일부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둔화한다고 답했다.
- 이들은 또한 이 같은 미 무역 정책의 여파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Reuters 기사

WSJ: Fed's John Williams Says Rate Stance Remains 'Entirely Appropriate'
뉴욕 연준 총재 “연준의 금리 신중 입장은 적절하다”

- 뉴욕 연준 총재인 John Williams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는 그 근거로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가 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달 29일부터의 양 일간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물류]

WSJ: China Threatens to Block Panama Ports Deal Unless Its Shipping Giant Is Part of It

중국,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항만 거래에 중국 선박회사 참여 요구

- 중국은 파나마 운하 내 40여개 항만을 Blackrock과 MSC가 매입하려는 상황에서 자국의 선박 회사인 Cosco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같은 매각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
- 현재 이번 거래 방안에는 홍콩계 기업 CK Hutchison이 소유한 항만 2개도 포함되어 있다.
- 현재 중국의 거래 당사자인 BlackRock, MSC, Hutchison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ariff Risk Nudged More Firms Closer to Default, Moody's Says

무디스 “관세로 채무 불이행 위험 기업 증가”

- 무디스사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아주 높은 기업들의 숫자가 지난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늘어났다. 미국의 무역 및 관세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신용 상황이 나빠진 탓이다.
- 2분기에 가장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군에 속한 기업이 16개 늘어 총 241개 군이 됐다는 것이다.
- 이 기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법원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진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며, 이 가운데 사모펀드 회사들이 위험군에 많이 속해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Eyes Tariff Rate of 10% or 15% for More Than 150 Countries

트럼프, 1백50여개 국에 10~15% 관세 부과 방침

- 트럼프는 미 관세가 대략 10%~15%에 달할 것이라는 서한을 1백50여개국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그 같은 관세율로 결정될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업들은 미국과 무역량이 적은 기업들인데 당초 예상보다 적은 관세율을 부과 받을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outh Korean Minister Nominee Says US Deal Possible in Two Weeks

한국 외무 장관 지명자 “2주 내 관세 타결 가능하다”

- 한국의 외무 장관 조현 지명자는 8월에 미국의 25%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양국 과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재 미국 측은 한국에 농업 시장 특히 쇠고기와 쌀 수입 개방과 디지털 규정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 현재 한국의 농업 부문 단체들은 농업 분야의 개방이 이뤄지면 농업과 식품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Trump says US will stick to 25% tariff on Japan, may have deal with India soon

트럼프, “일본에 25% 관세 유지하고 인도와는 곧 합의 될 듯”

- 트럼프는 어제 수요일 일본과는 발송한 서한 대로 25% 관세가 아마 부과될 것 같고 인도와는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바로 전에는 인도네시아와 미 관세 19%에 합의했었다.
- 그는 일본과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그는 곧 몇 가지 좋은 무역 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바레인 왕세자 살만 빈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바레인과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오일]

Bloomberg: Oil Rises as Supply Disruption Concerns Offset Strong Dollar

유가 상승세...공급 우려로 달러 강세 상쇄

- 런던의 석유 가격이 이라크의 공급 중단과 달러의 강력한 반등을 고려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1.2% 상승한 후 배럴당 67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 파월 연준 의장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며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이라크의 드론 공격으로 쿠르드 자치구가 하루 약 2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잃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Staunovo에 따르면, 공급 우려는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형태로 원유 가격 곡선에 반영되었다. 백워데이션은 만기가 먼 선물 가격이 만기가 가까운 선물 가격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ber Partnering With Lucid, Nuro to Launch Robotaxis in 2026

우버, Lucid·Nuro와 손잡고 2026년 로보택시 출시 예정

- 우버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Lucid 및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Nuro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말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6년간 최소 2만 대의 로보택시가 우버 플랫폼에 배치된다.
- 우버는 Nuro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Lucid SUV 차량을 구매하여 자사 플랫폼에서 운영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해당 차량은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Nuro의 폐쇄 회로 테스트장에서 운행 중이다.
- 이번 협력은 우버가 자율 주행차 테크 기업 및 자동차 제조업체와 체결한 12건 이상의 파트너십에 추가되는 것으로, 로보택시 상용 앱으로써 자리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ade-in-China Chevys for \$17,000 Are Winning Fans in Mexico

17,000달러의 중국산 쉐보레, 멕시코에서 인기

- 중국에서 생산된 쉐보레 트랙스 모델 차량이 멕시코에서 약 17,0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이 모델의 연비와 디자인, 가격 경쟁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 GM이 멕시코에서 판매한 차량의 약 65%가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중국산 자동차 수입은 작년 멕시코 신차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 브라질, 인도, 일본산 자동차 수입량을 앞지르는 수치이다.
-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USMCA를 통해 멕시코 내 중국산 수입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SMC to Speed Up Arizona Expansion to Meet Soaring Chip Demand

TSMC, 급증하는 칩 수요 충족 위해 애리조나 확장에 박차

- TSMC가 급증하는 미국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리조나에서의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 이들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TSMC는 지난 3월 미국 칩 제조 공장에 총 1,6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 애리조나의 첫 번째 공장은 첨단 칩을 생산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부과 중인 상호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려의 요인으로 남아있는데, TSMC는 고객 수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U.S. Trade Deals, Letters, and Tariff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미국 관세, 서한, 협상: 한국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국에 부과될 예정이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장은 협상의 시간을 더 확보해주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에 보낸 서한은 미국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까지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KEI 원문

뉴욕증시, 연준의장 해임설로 롤러코스터...나스닥 최고치 경신 트럼프의 해임 부인에 반등...美국채 30년물 금리도 5% 넘으며 '출렁' 다우 0.53% 상승·S&P 500 지수 0.32%↑·나스닥 0.25% 올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임 계획을 부인하면서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4,254.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0,730.49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